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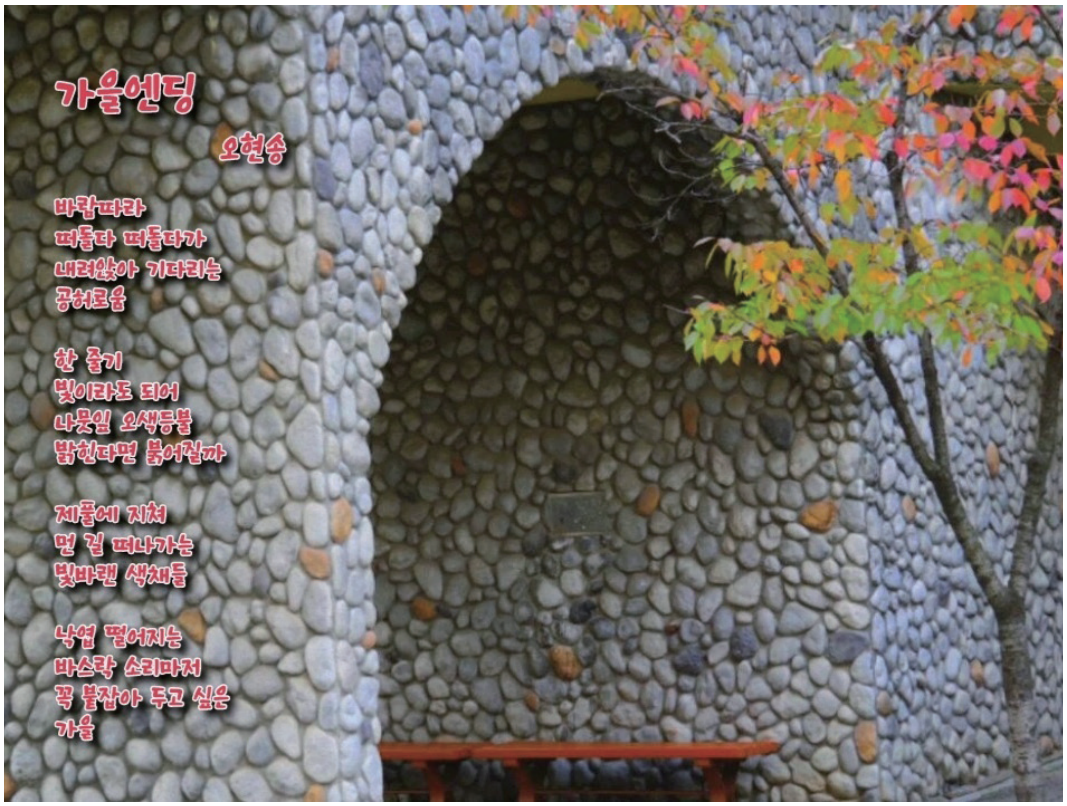
함께마을신문

최진

우리 함께마을신문의 창간호로부터 일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신문 기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의 전공으로 인해 편집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올해 초 수원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에 지원하면서부터는 대표까지 겸하다가 너무 버거워서 지금은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비록 학창시절의 전공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후 삼십여 년을 멀리 해왔었던지라 마을신문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 창간호부터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니만 올해에는 더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름호와 가을호를 내게 된 것 같다.

기자 모집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문의전화도 오곤 했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는 길에 누군가 현수막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다가가서 마을신문 활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기자가 된 분도 있다. 참고로 현재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서 최연장자로 사진과 시작(詩作) 분야에 특기가 있다. 이사진과 시의 주인공이다.



작년에는 창간호 한번만 발행했지만 올해에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여름과 가을 두 번을 발행했고 내친 김에 내년 초에 겨울호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비록 아직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경험이 부족해서 발행 일자를 정해놓고서는 항상 마감시간에 쫓기곤 한다. 그래도 시한이 닥치면 없던 힘이 어디서들 솟아나는지 발행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이제 지원 없이 겨울호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로 고민은 좀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주민들도 점차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에 신문의 역할이 커지고 기사 내용도 점점 더 좋아진다는 반응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기자단은 다섯 명에 지나지 않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두 자리 수로 확대하고 결간 없이 꾸준히 이어지는 함께 마을신문이 되고자 한다.